

혁명에 관한 이야기 - 6

미국의 시민혁명 '독립혁명'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독립혁명 vs. 독립전쟁

영국의 명예혁명이 혁명에서 불가피한 무력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한 명명이라면 미국의 독립혁명은 정반대로 전쟁을 거치고서야 혁명을 쟁취하였기에 독립전쟁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이 독립과정에서 벌인 영국과의 전쟁을 강조한다면 '독립전쟁'으로 시민혁명을 인식할 것이고, 전쟁을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되 보다 거시적으로 시민혁명을 이해하여 미국의 독립과 건국에 초점을 맞춘다면 '독립혁명'으로 인식할 것이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시민혁명 성공의 결정적 순간이기는 하나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전투보다는 시민혁명의 성취과정과 미국 특유의 정치체제 발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메리카 식민지

1492년 가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 에스파냐를 떠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북아메리카에 상륙하였다. 이후 첫 번째 식민지화 시도는 실패하였으나 여러 번 계속된 시도 끝에 1607년에 식민지 건설에 성공



뉴암스테르담 지도, 1660년

하였다. 이후 영국은 제임스타운 식민지를, 네덜란드는 지금의 뉴욕에 뉴암스테르담 식민지를 건설했다. 또 영국의 웨이커 교도들은 펜실베이니아에, 청교도들은 뉴잉글랜드지방에,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대가로 자유를 얻은 영국의 범죄자들은 조지아에 각각 정착하게 된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정체성에 따라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미국 주들의 시초이다. 18세기 중반 영국은 영국의 필요나 식민지 현지 사정에 따라 직할 식민지, 영주령 식민지, 특히 식민지로 나누어 아메리카 식민지를 통치했다.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1740~1748)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는데, 식민지인들은 이때 영국 신민이라는 점에서 단일한 정체성을 인식하였다. 1754년 벤저민 프랭클린은 각 식민지가 인디언 문제나 식민지 방어 등 공통과제를 논의할 대회를 제안했으나 영국왕 조지 2세는 이를 거부하였다. 시도로 그쳤으나 이는 아메리카에서 식민지 각주가 통일의 필요성을 어렵게나마 자각한 계기였다.

혁명의 다양한 배경



1718~1720에 기속사로 건립된 하버드 대학교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매사추세츠 홀

역사적 사건은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전개된다. 물론 모든 사건을 다 다룰 수도 없고 이는 무의미하지만, 역사를 과도하게 단순화하여 파악하는 것은 인식적 폭력이자 본질 왜곡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우려한다. 아메리카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한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식민지인이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마침내 독립하여 미국을 건국했다는 스토리는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반대로 식민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영국에서

찾았고 영국을 모방했다. 특히 식민지의 상류층과 특권층은 영국 방문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영국의 조지아 식 저택과 의복, 사교댄스 에티켓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국을 동경하고 따랐다. 식민지의 사상 조류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계몽주의 지성의 흐름에 영합하였다. 그러나 식민지는 식민지일 뿐 본국이 될 수는 없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

1754년에 시작하여 1763년에 끝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의 패권을 두고 아메리카에서 벌인 전쟁이었다. 영국은 식민지인에게 군사훈련을 시켰고 식민지인도 영국과 하나가 되어 프랑스와 싸웠다. 파리조약에 의해 패전국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대부분을 영국에 내주었다. 식민지 13개 주에 더 이상의 외적은 없었다. 물론 상황은 바로 반전된다. 영국과 식민지는 톨톨 뭉쳐 싸웠으나 전쟁 중에, 그리고 전쟁 후에 누가 더 공이 많았는가, 혹은 더 큰 희생을 하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의 조지 워싱턴

였는가에 대하여 입장 차이를 보였다. 영국의 상류계층은 자신들은 막대한 전쟁자금을 대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세금을 납부했는데 식민지인들은 주머니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에 대해 식민지인들은 영국을 위해 피 흘리며 싸워 희생했는데 정작 본국인은 전쟁에 별로 참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영국을 비난했다. 하나의 사실이라도 입장에 따라 완전히 반대로 인식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역사의 사례이다.

영국의 식민지 규제 정책

영국은 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아메리카에서도 관철시키려 했다. 영국은 ‘항해법’을 제정하여 아메리카 식민지의 경제를 규제하려 하였는데, 이는 1689년 권리장전에서 보장한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매사추세츠의 변호사 제임스 오티스는 1761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배하였다. 한편 영국의 조지 3세는 1763년 미국의 식민지가 애팔래치아 산맥 서쪽으로 개척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들 말고도 여러 사건의 흐름은 영국이 식민지를 견제하고 규제하는 방향이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아메리카 식민지의 지식인들은 존 로크의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과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존 로크는 정부가 국민의 위임에 반하는 통치를 할 때 주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몽테스키외는 권력분립 사상은 미국 특유의 대통령제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식민지 정치인들은 영국 문화에 우호적이면서도 영국의 귀족정치에는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정치인 중에서 공화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증가했다.

대표자의 참여 없는 세금부과는 무효

영국은 7년 전쟁 후 캐나다와 플로리다, 미시시피강 동쪽의 원주민 영토 등 아메리카대륙에서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전쟁 비용과 늘어난 식민지 관리 비용 등으로 재정 보충이 시급했다. 영국은 재정 부족분을 식민지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여 메우려고 했다. 이때 설탕법, 인지세법 등 여러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식민지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채 영국 본국 의회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1773년의 차법은 ‘보스턴 차 사건’을 촉발하였고, 이는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보스턴 차 사건을 묘사한 석판화, 1846년 작

독립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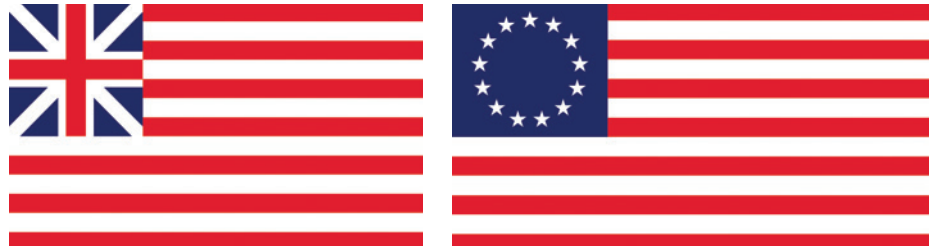
1775년 첫 전투인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시작으로 병커힐 전투, 보스턴 공방전, 새러토가 전투, 요크타운 전투 등이 벌어졌다. 전쟁 중인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대륙군 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 1783년 파리조약이 체결되었고,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요크타운의 항복, 1797년 존 트럼블 작

독립선언

1776년 7월 4일 미국의 13개 주 대표는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독립선언은 자연법 사상에 의거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를 천명하였고, 어떤 정부라도 이를 파괴할 때에는 그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정당화하였다. 초고에 있던 노역무역 비판 대목이 빠지는 등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근대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독립선언은 의미가 크다. 미국은 현재에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의 NBA 농구팀의 이름도 1776년을 기념하여 '76ers' 세븐티식스스이다.



식민지 시대 기(좌)와 독립혁명 시기에 벤티 로스가 디자인한 미국 기(우)

독립혁명 이후

이후 아메리카 합중국은 헌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 연방제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인 역사를 발전시킨다. 연방제는 주의 권리를 우선하자는 생각과 때로는 충돌하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장과 협력,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회가 아닌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더 효율적으로 미국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었다. 독립혁명은 국제전 양상도 띠었기에 그 여파도 미국과 영국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영국의 숙적 프랑스는 독립전쟁 동안 미국의 편에 서서 영국과 싸웠다. 이때 재정을 소모한 프랑스는 루이 16세가 오랫동안 열지 않던 삼부회를 소집하여 세금을 걷고자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프랑스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프랑스 혁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간이 많이 흘러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나라를 세운 경우가 많았다. 한국도 그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보다 대통령의 권한만 강조하여 독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우리나라도 1987년 현행 헌법부터 이를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시민혁명으로서의 미국 독립혁명

어쩌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힘을 앞세워 원하는 바를 얻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속성은 그들의 독립과정에서부터 각인된 태생적 본질일까? 식민지와 본국의 관계를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영국 정부가 더이상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보장해줄 수도 없다는 판단에 이르자 그들은 무력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였다. 단선적으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폭동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여 급히 음식점인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겨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일제 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바로 자수한 민족 대표 33인의 모습이 대조되어 씁쓸하다. 압도적 무력의 차이 때문에 자칫 시민의 일방적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변호할 수도 있겠으나,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安危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아도 독재정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을 때 평화적으로 이를 회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촛불혁명 정도? 사건임을 전제하자면,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의 갈등과 이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의 정착으로 도모하려는 노력이 과거와 현재보다는 더 자주적이었으면 한다. 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주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 싸운 것처럼. 🇺🇸

그림 출처 : 위키피디아